추밀공파 정헌공, 밀직공, 부윤공 추향제 봉행

정헌공正獻公, 밀직공密直公, 부윤공府尹公 추향제가 2018년 10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에서 500여명의 족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정헌공 권준식 회장은 "날씨도 쌀쌀한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에 임하자"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서 권석원 사무처장 사회로 결산보고 및 묘소 진입로 폭 4m 도로포장공사, 묘역 보수공사 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친 후 정헌공부터 밀직공, 부윤공 순으로 향사를 진행했다. 정헌공 초헌관에는 권남주, 아헌관에는 권광순, 종헌관에는 권정택이 각각 담당했다. 축은 권영익 목사공 총무가 맡았다. 밀직공 초헌관은 권영재, 아헌관은 권순의, 종헌관은 권혁상, 축은 권오갑씨로 분정했다. 부윤공 초헌관에는 권호익, 아헌관에는 권진기, 종헌관에는 권충원, 축은 권송웅이 담당했다. 모든 집례는 권동원 참의공파 상무이사가 도맡아 진행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결산보고 등 회의를 진행하는 권석원 사무처장(왼쪽)과 권준식 정헌공 회장

추밀공파 좌윤공 추향제 봉행

초헌관 권박원이사장

좌윤공(權循, 17세) 추향제가 2018년 10월 14일 오후 1시에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 좌윤공 묘역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 권박원, 아헌관 권병선, 종헌관 권경수, 집례 권동원, 축 권영익(목사공 총무)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묘소로부터 약 20여 미터 앞에는 지난 5월에 세운 신도비가 그 엄숙함을 더해 주었고 그 옆에는 안내판처럼 좌윤공 권순의 가계도가 세워져 있어 금방 누구의 묘역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추향제를 마친 후 집안 어르신께서 원래는 정헌공(왕후 王煦)이 안동권씨였는데 충선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왕씨로 되었다가 태조대에 다시 안동권씨로 돌아왔다 하여 정헌공의 세 아들 이름이 장남은 순循(좌윤공)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이고, 둘째는 복復(花山府院君)으로 '다시'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으며, 셋째는 득得(直長公)으로 '얻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즉 왕씨로부터 돌아와서(循) 다시(復) 안동권씨를 얻었음(得)을 이름자로 나타냈다는 것이다. 가족의 역사적 유래가 자연스럽게 전승되는 뜻깊은 추향제였다.

편집국장 권행완

추밀공파 화산부원군 추향제 봉행

2018년 10월14일 둘째 일요일 10시 경기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안동권씨 정헌공 묘역에서 정헌공正獻公 추향제 봉행을 시작으로 하여 밀직공密直公 부윤공府尹公 향사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 1시부터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좌랑공左郎公· 부정공副正公 향사를 봉행하였다. 화산부원군은 부윤공 권숙의 둘째 아들 권복(權復)이다. 강계절제사를 역임했으며 아들 일곱을 두었는데 그 중 권공權恭이 태종의 부마(세종실록17년 6월 5일)가 됨에 따라 화산부원군이 되었다. 화산부원군 추향제에는 초헌관 권오범權五範, 아헌관 권홍택權鴻澤, 종헌관 권성호權琥鎬씨가 헌작獻爵하고 종원 50여명과 함께 엄숙히 거행하였다. 초헌하신 권오범씨는 화산부원군 감사이며 목사공牧使公 부회장으로 문중에 두루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으로 알려졌다.

권정택 대종회 부회장

권영복 회장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

권영복(제12대 복야공파종회장,㈜새서울레저 골든비치골프리조트) 회장은 지난 10월 3일 안동 탈춤공원 경연무대에서 열린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안동지부가 주관하는 "2018 안동의 날 기념행사"에서 안동발전과 안동인의 위상을 드높인 분들을 선정해 '명예로운 안동인상'과 '자랑스러운 시민상' 및 '특별상'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명예로운 안동인상'을 수상했다. 권영복 회장은 복야공파종회 제12대(2008~2010)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복야공파는 물론 전체 안동권문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종중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올해 '특별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안동의 명예를 드높인 이희범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명예로운 안동인상'은 출향인으로 안동인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권영복 회장과 천진기(국립전주박물관) 관장이, '자랑스러운 시민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서수웅 대한적십자사 안동태화봉사회장과 최연희 안동시새마을부녀회장이 수상했다.

안동시는 지난 2003년부터 안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50만 안동인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0월 3일을 안동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권오익 사무국장

추밀공파종회 권영빈 사무국장 타계

지난 10월 20일 추밀공파종회 권영빈 사무국장이 노환으로 타계했다. 권영빈 사무국장은 추밀공파종회 종무를 20여년 간 담당하면서 추밀공파 족친간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등 종사 업무를 챙겼었는데 갑작스럽게 뇌졸증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9세이다. 권국장은 6.25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로 현충원에 묻힐 예정이다. 자녀로는 2남 1녀를 두었다.

권기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권영희 전 교수 대종회 부회장 선임

지난 10월 8일 오전 11시 대종회 권해옥 회장은 대종회 사무실에서 권기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권영희 전 한라대 교수를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권기식 전 국정상황실장은 현재 (사)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공공외교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권영희 전 교수는 성악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주로 연주를 하고 있다. 안동권문의 행사시에 오페라 가곡을 운영하는 남편과 함께 재능기부도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권기식 부회장, 권해옥 회장, 권영희 부회장, 권오한 제주종친회장(왼쪽부터)

● 미니 인터뷰 - 권기식 부회장

부회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먼저 100만 족친의 구심점인 대종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00만 족친들이 대종회를 중심으로 더 화합하고 나날이 번창하고 발전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한국과 중국의 교류 전문가로서 한국과 중국 도시 간의 우호를 상호 증진시키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중국국제우호연락회(회장 천위안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초청으로 중국 베이징과 시안 등을 방문한다. 방문 기간 중 중국 국제우호연락회와 한중 공공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국제우호연락회의 주선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혁명 유적지가 있는 량자허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향후 대종회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

먼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다보니 중국에 대종회 지회를 만들어 중국에 있는 우리 족친들에게 뿌리를 찾게 해 주고 싶다. 또한 100만 족친들이 중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량 역할도 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조 태사공의 뜻을 받들어 전·현직 공직자 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그래서 많은 족친들이 자연스럽게 대종회에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족친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많은 족친들이 함께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권창희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재생 성공전략" 강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원장 김학도)은 5일 오후 3시 용산전자상가 3층 라운지에서 신개념 지식융합 콘서트 '2018 테크플러스(tech+) 용산'을 개최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권창희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를 통한 도시재생 성공전략'을 주제로 용산의 새 미래에 대해 강의했다. 용산이 개발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결을 통해 지속이 가능한 공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실제적 도시재생 방안에 대해 다뤘다.

권창희 한국스마트시티학회 회장이 '스마트 용산의 첫 걸음'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세무법인 화인

대표세무사: 권 혁 창 (權赫昶) (010-3680-5057) 복야공파36代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해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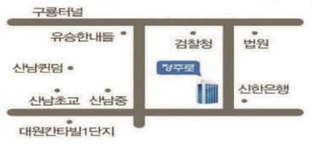
7명의 경력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청주의 법률섬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CJ LAW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대표변호사 권태호

- 안동권씨 추밀공파 33세손
- 안동권씨 대종원 부총재(현)
-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장(현)
- 춘천지검장/대전고검차장검사
- 청주지검/인천지검 차장검사
- 서울동부/부산/광주지검 부장검사
-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 검사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 대검찰청 과장, 법무부 검사
- 안산(초대)/충주지청장



구성원 변호사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박종일
대표변호사	김준회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제천)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4, (산남동657) 엔젤변호사빌딩 7F(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EL. 043-290-4000(대표전화) FAX.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형사/행정/가사/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 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공증/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